

SPECIAL FEATURE

Korean Artists Today 100+16

2016년 새해가 밝았다. Art는 1999년 창간 이후 지난 17년간 한국미술의 역동적인 흐름과 궤를 함께 해 왔다. 20세기 미술의 유산을 남김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21세기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발 빠르게 포착하며 한국미술의 ‘안과 밖’을 종합무진해 왔다. 이제 Art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2016년의 문을 연다. 이번 신년호를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 특별호로 기획, 작가들의 활약상을 토대로 지난해의 ‘미술 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Korean Artists Today 100+16’은 2015년 한 해 동안 활동이 두드러졌던 한국 작가 116명을 선정, 작가의 최신 약력 및 작품 화보를 정리한다. 여기에 주요 평론의 일부를 세심히 발췌, 소개해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이 발췌문을 토대로 편집부에서 뽑아낸 작품의 ‘키워드’를 글머리에 심는다. 특별호 제목의 숫자 ‘100+16’은 20세기의 ‘100년’에 21세기의 ‘16년’을 더한 것이다. 본지가 주목하는 ‘20세기와 21세기의 만남’을 상징한다. 선정 작가의 범위는 2015년에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부터 주요 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로 정했다. 또한 작가들의 개인전 장소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국내 지역 미술관 및 전시공간부터 해외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족적을 세심히 돌아봄으로써 지역별 균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원로작가부터 중견, 중진작가를 주축으로 하되, 그동안 미술계에서 맹활약한 30대 중후반 이상의 작가까지 고른 연령 기준을 세웠다. 물론 Art는 30대 이하 신진작가들의 활약에도 늘 주목하고 있다. 향후 별도의 기획을 통해 신진작가들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마당’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잡지의 역할과 기능도 변한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고, 종이 잡지에 대한 열광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Art는 잡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온라인의 막대한 정보량과 빠른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종이매체만의 느리고 깊은 호흡을 늘 고민한다. 지면 위에 지나간 역사를 각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자료가 되는 것.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앞으로 Art는 매해 신년호를 이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로 꾸릴 것이다. 매년 이 특별호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그려 낸 한 해의 미술지형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바란다.

이광호 Lee Kwang-ho / b. 1967

서울대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Solo Exhibitions** 국제갤러리(2014, 2010), 갤러리소소(2012), 조현화랑(2011) 등 **Group Exhibitions**
 (2015 크리스티 아시아현대미술)(홍콩컨벤션센터 2015), (Korea Tomorrow)(성곡미술관 2015), (심안으로 본 타자)(갤러리룩스 2015), (환영과 환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5), (Royal Jelly)(갤러리로얄 2014) 등 **Awards** 카스텔론 국제회화공모전 후보자 선정(2006),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및
 인기작가상 (2006), 한국현대판화공모전 우수상(1995) **Residencies**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2005) **Current Post** 이화여대 서양화전공 교수



촉각적인 회화 이광호는 직접 장소를 방문한 뒤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서 그렸다고 한다. 그는 이른바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소재로 해서 그렸다. 사실 정념은 모든 대상에서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무척이나 개인적인 문제이자 신비주의적이고 주술적 차원이기도 하다.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은 모호한 자신의 욕망을 대신 암시하는 장소들이기도 하다. 그 풍경은 우연히 발견된다. 덧없는 바람이 불며 빠르게 스쳐지나가는 관자의 시선이 있고 흐느끼는 풀들이 있다. 시선은 불속 풍경 안으로 들어갔다. 추상적인 붓놀림이 운율처럼 흐르고 감성적인 붓질이 춤춘다. 선인장에 비해 이 풍경은 무척 자유롭고 개인적이다. 한결같이 평범하고 무의미한 장소, 지루하고 건조한 풍경인데 몽환적인 색조, 희부연한 느낌이다. 작가는 다양한 풀과 나무의 피부를 애무한다. 마치 잔가시로 가득 덮여 있던 선인장의 어느 한 부위가 확 펼쳐져서 풍경으로 나왔을 것 같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린다는 방법론, 그리기 자체, 붓질을 적극 모색하는 편이다. 풍경화에 밀착해서 들여다보면 온통 추상적인 붓질들이 선화, 난무를 만날 것이다. 가까이에서는 추상이고 일정한 거리에서는 극사실적인 그림이다. 사실 모든 그림이 그렇게 붙어서 보면 물질이고 뒤로 나가면 이미지이긴 하지만 구상과 추상을 의도적으로 뒤섞고 그 둘 사이의 경계를 시간과 거리,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유희하는 작업들이 최근 두드러진다. 이광호의 근작에서는 가능한 언어와 개념을 빼고, 무엇을 그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붓질을 할 것인가가 중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촉각적인 이 그림은 작가의 몸이 느끼는 사물의 피부질감, 그 감각을 붓질을 통해 온전히 전달하려는 데 있어 보인다. 촉각적인 회화 / 박영택(경기대 교수)

위 · (무제 3063) 캔버스에 유채 134.8×183cm 2015
 아래 · (무제 0531) 캔버스에 유채 134.8×183cm 2015